

No.75

Japan Weekly Digest

2011. 2. 26. ~ 3. 04.

☐ 금주의 이슈

- 주일EU대사, “일본과의 FTA 어렵다”
- 한일 기업연합, 브라질 희토류광산 공동투자
- 스위스모터쇼 개막, 친환경차 한일경쟁 격화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세계최초 메탄 하이드레이드 해양산출시험 실시
- 경단련, 미래도시계획 발표
- 자치단체 해외 물 비즈니스 지원

☐ 일본기업전략

- 히타치, 영국고속철도 차량 8조원 수주
- 파나소닉 대통합, 종업원 38만명 기업탄생
- 환경·자원 비즈니스에서 한일기업 간 협력 가속화

☐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기업을 둘러싼 M&A현황과 시사점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주일EU대사, “일본과의 FTA 어렵다”

-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 주일EU대사는 1일,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EU와의 FTA에 대해 “아직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”라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
- 또한, “이제부터 많은 작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교섭에 들어갈 수 없을 것”이라고 언급
- 구체적으로 **(1)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조달의 촉진 (2)외국기업의 투자 조건완화 (3)국제기준인증 수용 등 일본 측의 「비관세장벽」 철폐가 불가결이라고 지적**
- 특히, EU는 對日수출에서 관세가 걸리는 품목이 많지 않아, **정부조달 투명성 향상, 의료기기나 자동차 안전기준 등 「비관세장벽」분야 개선을 요구**

○ 한·일 기업연합, 브라질 희토류광산 공동투자

- 포스코와 신일본제철, JFE스틸 등 대형 철강업체와 한일 정부계 기관이 브라질의 철강광산개발회사 지분 15%를 인수하기로함
- 신흥국 등의 경제발전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, **한일 공동으로 희토류를 안정 조달할 수 있는 체제 구축**
- 투자대상 업체인 브라질 CBMM사는 자동차용 강판 및 파이프라인용 강관 등 고급 강재에 필요한 레어메탈인 ‘니오브’ 광산과 정제공장 등을 보유
- 양국기업 외에 국민연금공단, JOGMEC 등이 출자에 참여. 출자지분은 일본이 10%(약1000억엔), 한국이 5%(약500억엔)

○ 스위스모터쇼 개막, 친환경차 한일경쟁 격화

- ‘2011 제네바 모터쇼’에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회사는 전기자동차 등 최신모델을 공개, 친환경차를 둘러싼 양국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넋케이 보도
- 닛산은 한번 충전으로 240km를 달릴 수 있으며 제로백은 5초에 불과한 전기차 ‘에스플로’를 공개. 도요타는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도입한 ‘야리스’ 공개
- 한편, 현대자동차는 유럽전략형 자동차인 ‘i40’를 최초로 공개. 기아는 연내에 출시예정의 소형차 「리오」를 발표(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가 31킬로)
- 2010년 현대차그룹 유럽점유율이 4.5%로 도요타(4.2%)을 상회하고 있어, 한 EU FTA 체결에 의해 일본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日신문 보도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세계최초 메탄 하이드레이드 해양산출시험 실시

- 경제산업성은 석유 대체 에너지로 기대되는 「메탄 하이드레이드」 해양산출시험에 세계최초로 착수
- 일본은 올해 말에 東海앞바다에서 해저굴착작업(깊이 해저 약1,000미터)을 시작할 예정. 2018년 상업화 목표
- 해저 메탄 하이드레이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달리 고체이기 때문에 분해 등 메탄가스 추출 기술이 필요
- 지금까지 메탄 하이드레이드를 상업 생산한 국가는 없고, 향후 일본의 귀중한 자원이 될 전망

○ 경단련, 미래도시계획 발표

- 일본경단련은 3일, 「미래도시 모델」 구상을 발표했다
- 도요타나 스미토모화학 등의 기업과 지방자치체가 연계, 전국 10개 도시에서 환경·에너지, 의료, 교통, IT 첨단기술 실증 시험 실시
- 도요타시(豊田市)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한 저탄소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. 자동차에 설치한 센서로 심박수나 혈압을 계측하고, 드라이버의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
- 미쓰이부동산, 도쿄전력등이 참가하는 지바현 가시와시에서는 첨단의료·간호 시스템, CO2삭감기술의 도입, 도시형 농업도 진행
- 에히메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주도로 GPS를 사용한 농업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

○ 자치단체 해외 물 비즈니스 지원

- 국제협력기구(JICA)는 ‘자치단체의 해외 물 비즈니스 참여 지원’을 발표
- 정부개발원조(ODA)를 통해, 아시아 상하수도관련 사업계획에 자금을 제공하고, 주축이 되는 자치단체의 참여를 재촉
- 우선, JICA가 협력하는 필리핀 상수도사업에 요코하마시가 참여, 기술지도와 현지직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
- 일본 자치단체는 수질관리와 요금징수 등에서 풍부한 운영노하우를 가지는 반면, 해외업무 경험과 영업력이 약한 관계로 JICA가 서포트한다는 계획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히타치, 영국고속철도 차량 8조원 수주

- 히타치제작소가 6천억엔(약 8조원) 규모의 영국 고속철도사업을 사실상 수주했다고 발표
- 영국정부는 런던과 중부 도시인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차량제조 사업 관련, 히타치제작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에 들어감
- 히타치는 올해 말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고, 영국북부에 철도 차량생산기지를 건설할 방침
- 민간기업과 정부가 일체가 되어 영국고속철도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해외 인프라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

○ 파나소닉 대통합, 종업원 38만명 기업탄생

- 파나소닉은 4월 1일부터 계열사 파나소닉전기공업과 산요전기를 편입하여 인력 38만명의 거대기업으로 재탄생
- 파나소닉의 22만명 직원과 파나소닉전기공업의 6만명, 산요전기의 10만명 등 **38만명은 통합 후 9개 부서로 재편성할 방침**
- 오츠보 파나소닉 사장은 “이번 구조조정을 통해, 새롭고 통합된 파나소닉을 만들어 한국 업체를 비롯한 라이벌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밝혔음
- 일본 언론은 ‘3개 회사 통합과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과제’라고 지적

○ 환경·자원 비즈니스에서 한일기업 간 협력 가속화

- 미쓰비시는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사업 부문 제휴, JXNOE는 GS칼텍스와 리튬이온전지 생산에서 합작하는 등 환경·자원분야에서 한일 협력 가속화
- 미쓰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LNG상호유통 확대, 공동조사 등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
- JXNOE와 GX칼텍스는 연간 2000t 규모의 음극재 생산공장을 경북구미 산업단지에 건설하고, 차량용 리튬이온전지 회사에 공급할 방침
- 한일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△세계 환경·자원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 공동 대응 △리스크 분산 등 도모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일본기업을 둘러싼 M&A현황과 시사점 ”

I M&A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

- 톰슨 로이터(Reuters)에 의하면 2011년 2월 첫째주까지 세계 M&A 발표금액은 작년대비 69% 증가, 2000년 IT거품경제 이후 최대 규모
 - M&A 확대배경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전망과 금융 완화에 의한 Cash증가 등이 요인

II.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 동향

- 10년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 건수 가운데, 아시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2%
 - 일본기업은 아시아기업 M&A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자함

III. 아시아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M&A

- 자금여력이 풍부한 아시아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M&A도 증가되는 추세로, 전년대비 24% 증가한 73건을 기록(금액베이스:87%증가, 1179억엔)
 - 일본기업을 M&A함으로써 △기술력 △브랜드를 획득하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시아기업의 전략

IV. 중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&A 특징

- M&A컨설팅회사인 RECOF에 의하면, 2010년 1-8월동안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&A건수는 26건으로 전체의 약 30%를 차지
 - 제조업 인수를 통한 일본진출에서 최근 비제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
 - 일본기업이 중국기업의 M&A를 수용하는 이유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,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들임
- ⇒시사점: 우리기업들도 △경영이 어려워진 일본기업에 대한 집중적 M&A전개 △인수를 통해 일본기업에게도 메리트(한국시장, 신흥국 공동 진출, 기술거래 확대 등)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큐슈경제국제화 databook』 큐슈경제국, 3월1일
*출처:http://www.kyushu.meti.go.jp/report/1102_kokusai_data/all.pdf
- (2) 『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』 일본정책금융금고, 3월1일
*출처:<http://www.fsa.go.jp/news/22/singi/20110221-2/01.pdf>
- (3) 『불완전한 온난화대책, 연간 8조엔 해외유출』 일본경제연구센터, 3월1일
*출처:<http://www.jcer.or.jp/environment/pdf/rep110301.pdf>
- (4) 『일본의 공업: 변화하는 제조업』 경제산업성, 3월2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statistics/tyo/kougyo/wagakuni/2011.html>
- (5) 『자원관련 기술맵』 석유산업활성화센터, 3월3일
*출처:<http://www.pecj.or.jp/japanese/images/top/map.pdf>
- (6) 『2011년 산업기기수주전망』 일본산업기기공업회, 3월3일
*출처:<http://www.jsim.or.jp/pdf/mitoushi-H23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2월 28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 ○ 1월 상업판매통계속보 발표(경산성) ○ 1월 가전제품 국내출시실적 발표(일본전기공업회) ○ 1월 자동차, 생산 실적(자동차공업회)
3월 1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○ 1월 근로통계조사 발표(후생노동성) ○ 2월 자동차판매대수 발표(자동차판매연합)
3월 2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월 Monetary base발표(일본은행) ○ 파나소닉전공, 임시주주총회개최 * 파나소닉에 의한 완전 자회사화 결의
3월 3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~12월 법인기업통계조사(재무성) ○ 2월 경기동행조사(Teikoku data bank)
3월 4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월 자동차별 자동차판매대수 발표(자동차판매연합)